

슬랙스 봉제방법 비교연구

- 의복구성교재를 중심으로 -

신 장 희

경성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A Comparative Study of the Sewing Methods for Slacks

- Focusing on Clothing Construction Textbooks -

Jang-Hee Shin

Assistant Prof., Dept. of Fashion Design, Kyung Sung University

(2017. 2. 24 접수; 2017. 6. 8 수정; 2017. 6. 12 채택)

Abstract

The primary goal of most clothing-related textbooks currently used in colleges in Korea is to determine how to plan and develop basic patterns. Therefore, they are limited in understanding the patterns and sewing methods of practical, ready-made clothes that are continuously being upgraded.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regarding sewing methods in clothing construction textbooks, tight skirt, tailored jacket, and shirt sewing methods have been explained. However, there has been no study on the sewing methods of slack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basic data needed for making slack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ir sewing methods for educational purposes. In addition,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complements clothing construction-related textbooks according to the current trends of diverse clothing design and materials and develops learning materials for the construction of clothes, which are applicable to practice. In this study, the sewing methods and construction procedures of slacks stated in clothing construction textbooks that are currently used in colleges and fashion-related educational institutes were analyzed. Among a total of 47 textbooks on the market, 15 books that cover the cutting and sewing methods of slacks and are suitable to slacks design were u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most textbooks described the production methods only, without explanation of materials, which can affect clothing construction methods. Because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pocket and slacks procedures by textbook, there is a need for a standardized construction method with changes in clothing materials and design.

Key Words: Slacks(슬랙스), Sewing techniques(봉제방법), Clothing construction textbooks(의복구성교재), Making order(작업순서)

I. 서론

현대 의복은 동작의 효율성과 바로 직결되는 기능성과 동시에 심미성을 갖추어야하며, 착용

자의 체형과 착의목적에 맞는 의복행동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의류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인 봉제과정은 의류상품의 최종적인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생산라인의 중요한 부분으로, 착용자의 착용감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는 요인이다(김선영, 최영순2006).

슬랙스는 양 다리를 각각 감싸주는 형태의 하반신 의복아이템으로써, 20세기 이전에는 남성 의복의 전유물이었으나, 20세기 이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본격화되고,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여성복에 도입된 대표적인 남성의복 아이템 중 하나이다. 특히 슬랙스는 하반신 신체조건을 분석하여 패턴에 접목시킨 대표적 하의로써, 하체의 활동성을 증대시키며, 신체체형의 변화와 생활패턴, 소재의 변화를 고려한 패턴에서의 끊임 없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김경희, 2012).

패턴제작과 아울러 봉제공정은 의복을 제작하는데 있어 중요한 공정중의 하나이며, 상품의 질과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봉제공정은 봉제사의 개인적 경험과 지식 즉, 노하우가 중요하게 여겨져 왔지만, 최근 국내 봉제사의 감소, 생산기지의 이전과 외주(Outsourcing)가 늘어나고 있어, 각 공정별 분석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심재희, 2001).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의류봉제환경에 대비하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소재와 디자인을 제대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는 봉제방법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표준화된 제작방법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대학의 의류관련전공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복구성교재의 경우, 기본적인 패턴을 제도하고 제작하는 방법에 목표로 두고 있어, 발전하는 실무 기성복 패턴 및 봉제방법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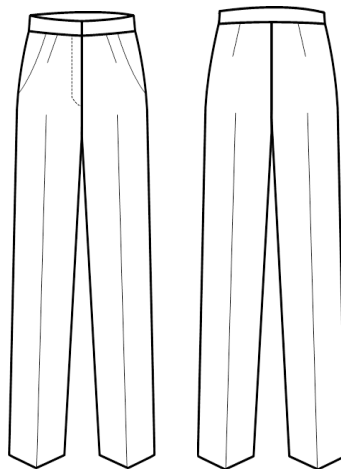
의복구성 교재에 나타난 봉제방법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타이트스커트 봉제방법(김선영, 최영순, 2006), 테일러드 재킷 봉제방법(신장희, 손희순, 2009), 셔츠 봉제방법(김경희, 2015)은 연구가 되었으나 슬랙스 봉제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슬랙스 제작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갈수록 다양화 되어가는 디자인과 의류소재에 맞추어 의복구성학 교재내용의 보완과 함께 표준화된 제작방법 및 실무현장에 적용 가능한 슬랙스의 제작기법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1. 기본 슬랙스선정

기본 슬랙스 디자인 선정을 위하여 현재 대학 및 패션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참



〈그림 1〉 선정된 슬랙스디자인

〈표 1〉 조사대상 의복구성학 교재

| | 서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연도 |
|---|-----------------|--------------------|----------|------|
| A | 어패럴메이킹 | 어미경, 김인주 | 교학연구사 | 2000 |
| B | 패턴메이킹 | 김은경, 김옥경 | 학문사 | 2000 |
| C | 여성복구성 | 이형숙, 남윤자 | 교학연구사 | 2001 |
| D | 서양의복구성 | 한순자, 서옥경, 하희정 | 예학사 | 2001 |
| E | 여성복만들기의 실제 | 정삼호, 안인숙 | 중앙대학교출판부 | 2003 |
| F | 팬츠만들기 | 임병렬, 정혜민 | 전원문화사 | 2003 |
| G | 봉제기법의 기초 | 정혜민, 조필교 | 전원문화사 | 2004 |
| H | 의복구성학 | 손희정 | 경춘사 | 2006 |
| I | 어패럴메이킹 스킷, 팬츠 | 남윤자, 박재경, 이형숙, 최경미 | 교학연구사 | 2007 |
| J | 의복구성학 | 천종숙, 석은영 | 동서문화원 | 2009 |
| K | 문화패션총서 스킷, 팬츠 | 조영아, 정미애, 조경희 | 시사출판 | 2010 |
| L | 자신감을 주는 어패럴 메이킹 | 오순, 이의길 | 경춘사 | 2010 |
| M | 패턴제작과 봉제기법 | 조현주, 정혜민 | 시그마프레스 | 2012 |
| N | 패턴&봉제실무 | 서순범 | 이중 | 2012 |
| O | 의복구성실기 | 김인화 | 한국산업인력공단 | 2013 |

고로 하였으며, 무릎에서 밑단 쪽으로 일자형태의 스트레이트 슬랙스이다. 허리벨트가 있고, 여밈은 덧단지퍼로 하였으며, 프론트 힙 포켓이 있고, 뒤쪽에는 포켓이 없는 기본형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슬랙스 기본 디자인은 〈그림 1〉과 같다.

2. 의복구성학 교재선정

본 연구에서는 의류관련 전공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의 슬랙스 제작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한국어로 출간 또는 번역된 약 47권의 교재를 분석하였다. 이들 교재는 크게 부분제작 방식과 의류 아이템별로 한 벌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분류 되었으며, 이들 교재 중 기본 슬랙스의 패턴제작방법 뿐만 아니라 재단 및 봉제 방법까지 함께 설명하고 있는 교재만을 선별하였다. 47권의 교재 중 슬랙스의 패턴제작방법, 재단 및 봉제방법을 함께 다루고 있는 15권의 교재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의복구성학 교재는〈표 1〉과 같다.

3. 슬랙스 제작방법 분석

교육용 교재에 나타난 슬랙스 제작방법을 분

석하기 위해 선정된 슬랙스디자인〈그림 1〉에 따라 심지부착여부 및 위치, 안감의 유무 및 부착방법, 겹감재단 시 시접량, 주머니 재단 및 봉제순서, 덧단지퍼달기, 슬랙스 봉제방법 및 제작순서로 교재에 제시된 그림자료와 설명을 통해 비교분석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심지부착여부 및 위치

심지는 의복의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아 중요성이 경시될 수 있으나, 평면적인 원단을 입체적인 의복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곡면을 나타내어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고, 세탁에 의해서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막아준다. 심지에는 직물심지, 부직포심지, 접착심지, 편물심지, 신축성이 있는 심지 등이 있는데 겹감의 소재와 사용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강순희, 서미아, 2002).

슬랙스 제작에 있어 심지사용은 제품의 형태성을 위해 지퍼부분, 지퍼덧단, 주머니입구, 주머니입구안단, 허리벨트에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교재에서의 심지부착 위치 및 심지의 종류는 〈표 2〉와 같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덧단

〈표 2〉 심지부착위치 및 심지종류

| | 지퍼 | | | 주머니 | | | 허리밴드 |
|---|------|------|----|-------|---------|----|------------|
| | 지퍼안단 | 지퍼덧단 | | 주머니입구 | 주머니입구안단 | | 허리밴드(벨트심) |
| | | 재단 | 심지 | | 유무 | 심지 | |
| A | ○ | 골 | ○ | 접착심지 | × | × | 벨트심 |
| B | ○ | 골 | ○ | 접착심지 | × | × | 접착심지 |
| C | ○ | 골 | ○ | 접착테이프 | × | × | 접착심지 |
| D | ○ | 골 | ○ | 접착테이프 | × | × | 벨트심 |
| E | ○ | 골 | × | 접착테이프 | × | × | 접착심지(몸판벨트) |
| F | × | 골아님 | ○ | 접착테이프 | ○ | × | 벨트심 |
| G | × | 골아님 | ○ | 접착테이프 | × | × | 접착심지 |
| H | ○ | 골 | × | 접착심지 | × | × | 벨트심 |
| I | ○ | 골 | ○ | 접착심지 | ○ | ○ | 접착심지(몸판벨트) |
| J | ○ | 골 | ○ | 접착심지 | × | × | 벨트심 |
| K | ○ | 골 | ○ | 접착테이프 | × | × | 접착심지 |
| L | ○ | 골 | × | 접착테이프 | × | × | × |
| M | ○ | 골아님 | ○ | 접착테이프 | ○ | × | 벨트심 |
| N | ○ | 골 | ○ | 접착테이프 | × | × | 접착심지 |
| O | ○ | 골 | × | 접착심지 | × | × | 벨트심지, 접착심지 |

〈표 3〉 안감부착방법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
| 겉감안감 따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앞판에만 안감부착 | | | ○ | ○ | | | | | | | ○ | ○ | | | ○ |
| 안감 없음 | | ○ | | | | ○ | ○ | | | | ○ | | ○ | | |

지퍼가 달리는 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교재에서 겉감원단의 안쪽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에 심지를 부착하였는데 F, G 두 권의 교재에서는 지퍼 안단부분에 심지를 부착하지 않았다.

지퍼 앞 덧단의 경우 겉감재단을 골로 하는 경우가 12권 이었고, 겉감재단을 골로 하지 않고 겉 밑덧단, 안 밑덧단을 따로따로 재단하는 경우가 F, G, M 3권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한권 K는 겉감이 얇을 경우에는 같은 옷감으로 골재단을 하고, 겉감이 두꺼울 경우에는 겉 밑덧단과 안 밑덧단을 따로 재단하라고 소재의 두께에 따라 설명하고 있었다.

주머니부분의 심지부착은 주머니 입구와 주머니입구 안단으로 나누어 보았다. 교재 모두 주머니입구에 심지를 부착하였으나 9권의 교재에서는 테이프심지를 사용하였고 6권의 교재에서는

접착심지를 재단하여 사용하였다. 주머니 안단 제작 유무에 관해서는 주머니입구 안단을 따로 재단하는 교재가 F, I, M 3권 이었고 나머지 12권의 교재에서는 주머니입구에 따로 안단을 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머니입구에 안단을 넣는 3권의 교재에서 한권의 교재만이 안단에 심지를 부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재에 따른 안단의 유무나 심지 사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체에서는 유행에 의해 허리선이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허리벨트를 일자형 밴드보다는 착용감이 좋으며 인체의 곡선에 자연스럽게 피트 되는 라운드형 벨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박상희, 2003). 업체에서는 벨트 폭이 좁을 경우에 한하여 직선벨트를 사용하는 반면 본 연구에 사용된 의복구성 교재에서는 패턴제작 시 몸판에

서 따로 제작하는 직선벨트가 13권, 몸판에서 잘라서 제작하는 곡선벨트가 E, I 두 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업체들은 한번 봉제를 더하는 비접착 심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접착 심지의 경우 필요에 따라 두 장이나 한 장을 대기도 하는데 연구에 사용된 의복구성 교재에서 직선벨트를 사용하는 13권의 교재 중 6권의 교재에서 비접착 벨트심지를 부착하였으며, 7권의 교재에서 일반 접착심지를 사용하였다. 교재 O는 벨트심지, 일반접착심지를 부착하는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명시되었으며, 교재 L은 벨트심지 부착에 관한 설명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슬랙스 벨트심지 부착에 관한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2. 안감의 유무 및 부착방법

슬랙스 제작시 안감은 겉감의 소재나 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처리하는데 무릎선 또는 무릎선보다 위쪽의 짧은 길이, 무릎아래 10cm길이, 슬랙스 전체 등의 3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대체로 면 슬랙스 같은 캐주얼한 슬랙스에는 안감을 대지 않고, 모직소재 슬랙스에서 무릎이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릎아래 10cm 정도 길이로 안감을 대며, 슬랙스가 다리에 감기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슬랙스 밑단에서 2~3cm위쪽까지 슬랙스 전체적으로 안감을 댄다(남윤자 외3인, 2007). 또한 전체적으로 앞·뒤판 모두에 안감을 넣는 의복아이템과 달리 슬랙스는 앞·뒤판 전체에 안감을 넣기도 하고 앞판에만 안감을 부착하기도 하며, 형태의 흐트러짐 방지 외에도 방한이나 비쳐보임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의복구성교재 15권 중 9권의 교재에서 겉감과 안감을 따로 재단을 하여 슬랙스를 제작하였으며, 겉감·안감을 따로 재단한 9권의 교재 중 소재나 디자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교재도 6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판에만 안감을 부착하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4권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재 중 K 교재만이 안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겉감의 두께에 따라 겉감이 얇은 옷감

인 경우 안감 식서를 밑단에 넣어 안감자국이 생기지 않게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겉감이 보통 두께의 옷감인 경우 두 겹 접어박기, 겉감이 두꺼운 경우안감을 세 겹 접어 박기 하는 방법까지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으며, L, O 두 개의 교재에서 겉감안감 따로 제작하는 방식, 앞판에만 안감을 부착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15권의 교재 중에 이 3권을 제외한 나머지 12권의 교재에서는 소재나 안감의 길이에 관한 설명이 없었으며, 겉감·안감 따로 제작하는 방식이 A, E, H, I, J, N으로 6권, 앞판에만 안감을 부착한 경우가 C, D 두 권, 안감 없이 겉감만으로 제작한 방식이 B, F, G, M 4권으로 나타나 겉감 소재에 따른 안감의 길이 및 유무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3. 겉감재단 시 시접량

슬랙스 겉감 재단 시 시접량으로는 15권의 교재 중 시접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교재가 1권 나타났다. 나머지 14권의 교재에서도 각 교재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타났다. <표 4>에 슬랙스 겉감 시접분에 대하여 비교·정리 하였으며 허리, 앞중심, 벨트, 앞덧단은 대부분 1~1.5cm, 엉덩이, 옆선은 1~2cm, 밑아래선이 1.2~2cm, 벨트, 앞덧단 1~1.5cm로 교재마다 대략 1cm의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뒤중심 부분은 1~3cm까지, 슬랙스 밑단은 4~6cm까지로 교재마다 최대 2cm로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주머니재단에서 주머니허리선 시접량은 1~1.5cm, 주머니 옆선은 1~2cm로 나타났다. 겉감 재단 시 시접량의 편차가 가장 큰 부분은 뒤중심과 슬랙스 밑단으로 나타났다.

4. 주머니 제작순서

프론트 힙 포켓은 슬랙스나 스커트에 많이 사용되는 포켓으로 허리둘레와 옆솔기선에 다는 포켓입구를 직선으로 하는 방법과 곡선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주머니 제작과정은 크게 ① 주머니입구박기 ② 누름상침 및 장식상침 ③ 마중천 연결하기 ④ 주머니둘레박기의 4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분류

〈표 4〉 걸감 시점량

| | 허리 | 앞중심 | 뒤중심 | 엉덩이 | 옆선 | 밑아래선 | 주머니 입구 | 밑단 | 벨트 | 앞덧단 | 주머니걸감 | |
|---|-----|-----|-----|-----|---------|---------|-----------|-----|-----|-----|-------|-------|
| | | | | | | | | | | | 허리선 | 옆선 |
| A | 1 | 1 | 1 | 1 | 1.5 | 1.5 | 1.5 | 4 | 1 | 1.5 | 1 | 1.5 |
| B | 1 | 1 | 1.2 | 1.2 | 1.2~1.5 | 1.2~1.5 | 1~2 | 4~5 | 1 | 1 | 1 | 1.5 |
| C | 1 | 1 | 3 | 1 | 1~1.5 | 1~1.5 | 3 | 4 | 1 | 1 | 1 | 1~1.5 |
| D | 1 | 1 | 3 | 1 | 1.5 | 1.5 | 1.5 | 4~5 | 1 | 1 | 1 | 1.5 |
| E | 1 | 1 | 1.5 | 1.5 | 1.5 | 1.5 | 1 | 5 | 1 | 1 | 1 | 1 |
| F | 1 | 1 | 2 | 1.2 | 1.2 | 1.2 | 1 | 4 | 1 | 1 | 1 | 1 |
| G | 1 | 1 | 2.5 | 1 | 2 | 1.5 | 3 | 6 | 1 | 1 | | |
| H | 설명 | 없음 | | | | | | | | | | |
| I | 1 | 1 | 3 | 1 | 1.5 | 1.5 | 1 | 4 | 1 | 1 | 1 | 1.5 |
| J | 1 | 1.5 | 2 | 2 | 1.5 | 1.5 | 1 | 4 | 1 | 1 | 1 | 1 |
| K | 1 | 1 | 2.5 | 1 | 2 | 1.5 | 3 | 6 | 1 | 1 | 1 | 2 |
| L | 1 | 1 | 2.5 | 1.5 | 1.5 | 1.5 | | 4 | 1 | | 1.5 | 1.5 |
| M | 1 | 1 | 2 | 1.2 | 1.2 | 1.2 | 1 | 4 | 1 | 1 | 1 | 1 |
| N | 1.5 | 1.5 | 3 | 1.5 | 2 | 2 | 1.5 | 4~5 | 1.5 | 1.5 | 1.5 | 2 |
| O | 1 | 1 | 2.5 | 1.5 | 1.5 | 1.5 | 1.5 | 4 | 1 | | 1.5 | 1.5 |

빈칸은 설명없음

〈표 5〉 주머니 제작순서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
| 방법 I ①-②-③-④ | ○ | | ○ | | ○ | | ○ | | | ○ | ○ | | | | |
| 방법 II ①-②-④-③ | | ○ | | ○ | | ○ | | | ○ | | | ○ | ○ | ○ | ○ |
| 방법 III ④-①-②-③ | | | | | | | | ○ | | | | | | | |

하였다. 교재 15권에서 총 3가지 순서로 주머니를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법 I 은 ①-②-③-④의 순서로 6권의 교재에서 나타났으며, 방법 II 는 주머니둘레를 먼저박고 마중천을 연결하는 ①-②-④-③의 순서로 8권의 교재, 방법 III 은 주머니 둘레를 먼저박고 주머니입구를 박는 ④-①-②-③의 순서로 한권의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5. 덧단 지퍼달기

덧단 지퍼봉제에 있어서는 지퍼 아래쪽에 덧단을 대주고 겹으로 드러나는 스티치의 폭이 일 반지퍼달기보다 넓은 방법으로 주로 슬렉스에 사용된다. 스티치가 나타나는 윗자락쪽에 안단이 들어가는데 시점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분리

하여 따로 재단(남윤자 외3인, 2007)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된〈표 6〉 교재들 중 11권은 스티치가 나타나는 윗자락 쪽의 안단을 시점으로 처리하였으며 F, G, K, M 4권의 교재에서는 안단을 따로 재단하였다. 이것은 〈표 2〉에서 앞덧단을 골로 재단하지 않고 각각 분리하여 재단하는 4권의 교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교재 분석결과 거의 모든 교재에서 다음의 7 가지 과정으로 덧단지퍼를 제작하였다. ① 슬렉스의 지퍼 달 부분을 남겨놓고 앞판의 중심선을 박아준다. ② 덧단 끝에 지퍼를 박아 고정한다. ③ 왼쪽시점은 완성선을, 오른쪽 시점은 완성선에서 0.3cm 밀어내어 다림질한다. ④ 오른쪽에 지퍼가 달린 덧단을 겹쳐놓고 완성선을 박는다. ⑤ 지퍼를 달은 후 지퍼달림선이 겹치게 놓고 핀으로 고정한다. ⑥안쪽에서 밑덧단을 짓히고 위 덧

〈표 6〉 지퍼 안단 재단

| | | | | | | | | | | | | | | | |
|----------|---|---|---|---|---|---|---|---|---|---|---|---|---|---|---|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 시점으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단 따로 재단 | | | | | | ○ | ○ | | | | ○ | | ○ | | |

〈표 7〉 슬랙스 봉제방법

| | 다트 | 옆선 | 밑위둘레선 | 가랑이밑 시접 | 바지밑단처리 |
|---|------------------------------|-----|-------|-----------------------|-----------|
| A | 박아서 중심으로 | 가름솔 | 두번박기 | 가름솔 | 감침질, 공그르기 |
| B | 실을 뽑아 묶어준다 | 가름솔 | 두번박기 | 가름솔 | |
| C | 박아서 중심으로 | | 두번박기 | 설명 없음 | 밑단 접어다림 |
| D | 박아서 중심으로 | 가름솔 | 한번박기 | 가름솔 | 감침질, 공그르기 |
| E | 실을 뽑아 묶어준다. 두꺼운 갑일 경우 가름솔 | 가름솔 | 한번박기 | 가름솔 | |
| F | 박아서 중심으로 | 가름솔 | 두번박기 | 직선부분까지만 가르고 가르지 않음 | 새발뜨기 |
| G | 박아서 중심으로 | 가름솔 | 두번박기 | 가름솔 | 감침질 |
| H | 박아서 중심으로 | 가름솔 | 두번박기 | 가름솔 | 감침질, 공그르기 |
| I | 박아서 중심으로 | 가름솔 | 한번박기 | 가름솔 | 감침질 |
| J | 실을 뽑아 묶어준다 | 가름솔 | 한번박기 | 설명 없음 | 새발뜨기 |
| K | 실을 뽑아 묶어준다 | 가름솔 | 두번박기 | 가름솔 | 감침질 |
| L | 설명없음 | 가름솔 | 두번박기 | 가름솔 | 새발뜨기, 감침질 |
| M | 박아서 중심으로 | 가름솔 | 한번박기 | 직선부분까지만 가르고 가르지 않음 | 새발뜨기 |
| N | 박아서 중심으로 | 가름솔 | 한번박기 | 가름솔 | 새발뜨기 |
| O | 실을 뽑아 묶어준다. 두꺼운 갑일 경우 가름솔 | 가름솔 | 두번박기 | | 새발뜨기, 감침질 |

*빈칸은 설명없음

단에만 지퍼가 고정되도록 박는다. ⑦겉에서 지퍼스티치 박고 고정되도록 되돌아 박는다. 이 순서로 뒷단지퍼를 슬랙스에 제작하였으며, 교재 H는 7가지 과정 중에서 ④, ⑤, ⑦의 과정만을 설명하였고, 교재N은 지퍼달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또한 지퍼에 비해 일반소재들이 잘 늘어나므로 신축성 있는 소재에서는 지퍼를 미리 당겨 다린 후 지퍼를 달거나, 심지부착 시 소재에 약간의 여유분을 넣어 부착함으로써 지퍼를 달면서 소재가 늘어나 외관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 여러 방법들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

6. 슬랙스 봉제방법 및 순서

슬랙스 봉제방법은 다트박기 및 끝처리, 옆선, 밑위둘레선 박기, 가랑이밑 시접처리방법, 바지 밑단 정리방법 등으로 살펴보았다. 슬랙스에서

다트는 소재의 두께나 특성에 따라 봉제를 다르게 적용해야하는 부분인데 본 연구에 사용된 교재 15권중 2권에서만 봉제 후 시접방향을 소재의 두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3권의 교재에서는 다트를 박아서 중심으로 찍는다고만 기술하고 있어 두께를 고려하지 않고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트의 끝마무리에 있어서도 실을 뽑아 묶어 매듭 짓는 방법은 4권, 다트 끝을 되돌아 박아 재봉사가 풀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10권으로 나타났다.

옆선솔기 처리방법은 C권에서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았고, 나머지 모든 교재에서는 가름솔로 솔기처리를 하고 있었다.

슬랙스에서 밑위둘레선은 밑위부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두 번 박아주는데 15권중에 10권이 밑위둘레선을 두 번 박는다고 설명하였고, 나머지 5권은 한번만 박는다고 나타났다. 가랑이밑

〈표 8〉 슬랙스 봉제순서

| | 봉 제 순 서 |
|---|--|
| A | 다트 - 주머니 - 지퍼 - 옆선, 밑아래선 - 밑위둘레선 - 벨트 - 밑단 |
| B | 다트 - 주머니 - 지퍼 - 옆선, 밑아래선 - 밑위둘레선 - 벨트 - 밑단 |
| C | 다트 - 주머니 - 옆선 - 밑위중심박기 - 지퍼 - 밑아래선 - 밑위둘레선 - 벨트 |
| D | 다트 - 주머니 - 지퍼 - 옆선, 밑아래선 - 밑위둘레선 - 벨트 - 밑단 |
| E | 주머니 - 다트 - 옆선, 밑아래선 - 밑위둘레선 - 지퍼 - 벨트 - 밑단 |
| F | 주머니 - 다트 - 옆선 - 앞지퍼 안단 - 밑아래선 - 밑위둘레선 - 지퍼 - 벨트 - 밑단 |
| G | 주머니 - 다트 - 옆선, 밑아래선 - 밑단 - 앞지퍼 안단 - 밑위둘레선 - 지퍼 - 벨트 |
| H | 다트 - 주머니 - 지퍼 - 옆선, 밑아래선 - 밑위둘레선 - 벨트 - 밑단 |
| I | 주머니 - 다트 - 옆선, 밑아래선 - 밑위둘레선 - 지퍼 - 밑단 - 벨트 |
| J | 다트 - 주머니 - 지퍼 - 옆선, 밑아래선 - 밑위둘레선 - 벨트 - 밑단 |
| K | 주머니 - 다트 - 옆선, 밑아래선 - 밑단 - 앞지퍼 안단 - 밑위둘레선 - 지퍼 - 벨트 |
| L | 다트 - 주머니 - 옆선, 밑아래선 - 밑위둘레선 - 지퍼 - 벨트 - 밑단 |
| M | 주머니 - 다트 - 옆선 - 앞지퍼 안단 - 밑아래선 - 밑위둘레선 - 지퍼 - 벨트 - 밑단 |
| N | 주머니 - 지퍼 - 다트 - 옆선, 밑아래선 - 밑위둘레선 - 벨트 - 밑단 |
| O | 다트 - 주머니 - 옆선, 밑아래선 - 밑위둘레선 - 지퍼 - 벨트 - 밑단 |

시점은 가름솔로 처리하는 교재가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설명이 없는 교재가 2권, 직선부분만 가름솔로 가르고 곡선부분은 가르지 않는다고 설명한 교재가 2권이였다. 바지밑단 처리는 대부분 감침질이나 공그르기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새발뜨기처리 6권, 밑단접어다림이 1권으로 나타났다.

의복제작 순서에 있어, 교재에 따라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지퍼나 트임을 우선적으로 제작하거나 밑단 정리 후 허리밴드를 달기도 한다. 따라서 교재들이 제시하는 제작순서는 먼저 좌우 또는 앞·뒤판 연결 전에 각 조각이 부분적으로 행해져야하는 과정인 다트나 주머니 등을 완성 후에 패턴의 크기가 작은 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박상희, 2003). 일반적으로 하의를 제작하는 작업은 다트봉제, 주머니 만들기, 옆솔기오버록 및 봉제, 밑위박기, 지퍼달기, 안감봉제, 허리벨트달기, 단처리 등으로 구분된다(박상희, 2009). 본 연구의 슬랙스 제작순서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A, B, D, H, J 5권의 교재에서 다트-주머니-지퍼-옆선, 밑아래선-밑위둘레선-벨트-밑단의 순으로 제작하였고, 교재 E, I가 주머

니-다트-옆선, 밑아래선-밑위둘레선-지퍼-벨트-밑단의 순으로, F, M 두 권의 교재는 주머니-다트-옆선-앞지퍼 안단-밑아래선-밑위둘레선-지퍼-벨트-밑단의 순으로, 교재 L, O는 다트-주머니-옆선, 밑아래선-밑위둘레선-지퍼-벨트-밑단의 제작순서로 나타났다. 교재 C는 다트-주머니-옆선-밑위중심박기-지퍼-밑아래선-밑위둘레선-벨트, 교재 N은 주머니-지퍼-다트-옆선, 밑아래선-밑위둘레선-벨트-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의 특성이나 디자인에 따라 다른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지만 의류생산업체의 슬랙스공정 순서는 대부분 다트-주머니-옆선, 밑아래선-밑위둘레선-지퍼-벨트-밑단의 순으로 슬랙스를 제작하고 있으며(조진숙, 박상희, 2001), 교재 L, O 두 권이 생산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권의 교재에서 7가지의 순서의 방법으로 슬랙스를 제작하고 있어 배우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상이한 경우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 및 패션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복구성교재의 슬랙스 봉제법 및 제작순서를 분석하였다. 대학 및 패션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의 슬랙스 봉제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출판된 약 47권의 교재를 분석하였으며, 47권 중 슬랙스 재단 및 봉제방법을 다루고 있고, 본연구의 슬랙스 디자인에 적합한 모델인 15권의 교재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의 형태성을 유지해주고 세탁 시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는 심지부착 여부 및 위치, 종류에 대한 설명이 교재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슬랙스 제작에 있어 심지사용은 제품의 형태성을 위해 지퍼부분, 지퍼덧단, 주머니입구, 주머니입구안단, 허리벨트에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교재에서의 심지부착은 위치 및 심지의 종류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다양한 소재의 특성에 따른 심지부착여부 및 위치와 종류에 대한 표준화된 설명이 필요하다. 허리벨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체들은 한번 봉제를 더하는 비접착 벨트심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접착 심지의 경우 필요에 따라 두 장이나 한 장을 대기도 하는데 연구에 사용된 15권의 교재 중 6권의 교재가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비접착 벨트심을 부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류생산 업체의 실질적인 생산방법에 따라 의복구성학 교재의 내용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의류생산 업체에서는 일자형 벨트 보다는 착용감이 좋으며 자연스럽게 피트 되는 라운드형 벨트를 많이 사용하고 밴드 폭이 좁을 경우에 한하여 직선벨트를 사용하는 반면, 본 연구에 사용된 의복구성 교재에서 허리벨트는 패턴제작 시 몸판에서 따로 제작하는 직선벨트가 13권, 몸판에서 잘라서 제작하는 곡선벨트가 E, I 두 권으로 나타났다.

둘째, 슬랙스에서 안감은 스커트와 달리 무릎 부분 형태의 흐트러짐 방지, 방한이나 비쳐 보임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재에서 소재나 디자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이 안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이 없었다. 또한 겉감 재단 시 시접량의 편차도 많이 나타나 디자인이

나 소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안감 처리방법 및 시접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주머니제작과정은 크게 4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는데, 주머니 입구를 먼저 박고 마중천을 연결하는 방법, 주머니둘레를 먼저 박고 마중천을 연결하는 방법, 주머니 둘레를 먼저 박고 주머니입구를 박는 총 3가지 순서로 주머니를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나의 내용을 교재마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덧단 지퍼봉제에 있어서는 모든 교재가 같은 순서로 제작하고 있었으나 중간과정을 생략하거나 설명이 없는 경우도 나타났다.

넷째, 슬랙스 봉제방법은 다투박기 및 끝처리, 옆선, 밑위둘레서 박기, 가랑이밑 시접처리방법, 바지밑단정리방법 등으로 살펴보았는데, 소재의 두께나 특성에 따라 봉제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교재에서 두께를 고려하지 않고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생산업체의 슬랙스공정 순서는 대부분 다투-주머니-옆선, 밑아래선-밑위둘레선-지퍼-벨트-밑단의 순으로 슬랙스를 제작하고 있으며 15권의 교재 중 2권만이 생산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랙스 제작순서는 15권의 교재에서 7가지의 순서의 방법으로 슬랙스를 제작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상이한 경우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의복구성교재의 슬랙스 제작과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교재에서 의류제작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에 대한 설명이 없이 제작방법만을 기술하고 있었으며, 슬랙스 제작순서 뿐만 아니라 주머니 제작순서 등도 교재별로 차이가 크므로 표준화된 교육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변화와 소재에 따른 변화된 제작방법을 의복구성학 교재에 적용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학 및 패션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전체로 확대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실제 의류 생산업체의 덧단지퍼 다는 방법 및 주머니봉제방법 등 부분별 제작방법 등으로 확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순희, 서미아. (2002). *의복의 입체구성(개정판)*. 서울: 교문사.
- 김경희. (2012). 의복구성 교재에 나타난 슬랙스 패턴 연구-심미성과 기능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복문화*, 15(3), 105-120.
- 김경희. (2015). 의복구성 교재에 나타난 셔츠 봉제 방법 비교 연구. *한복문화*, 18(2), 51-61.
- 김선영, 최영순. (2006). 의복구성 교재에 나타난 타이트스커트 봉제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 *복식*, 56(8), 113-122.
- 김은경, 김옥경. (2000). *패턴메이킹*. 서울: 학문사.
- 김인화. (2013). *의복구성실기*.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 남윤자, 박재경, 이형숙, 최경미. (2007). *어패럴메이킹 스커트, 팬츠*. 서울: 교학연구사.
- 문화복장학원. (2010). *복식조형강좌 스커트, 팬츠* (조영아, 정미애, 조경희 역). 서울: 시사출판. (원저 1993 출판)
- 박상희. (2000). *시물레이션을 이용한 여성복 생산라인 설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상희. (2003). 대학의 의복구성 교육 교재 내용과 업계 생산공정의 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5), 179-191.
- 서순범. (2012). *패턴&봉제실무*. 서울: 이종.
- 손희정. (2006). *의복구성학*. 서울: 경춘사.
- 신장희, 손희순. (2009). 테일러드 재킷 봉제방법 비교 연구-의복구성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2), 75-84.
- 심재희. (2001). *숙녀복 재킷 생산실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미경, 김인주. (2000). *어패럴메이킹*. 서울: 교학연구사.
- 오순, 이의길. (2010). *자신감을 주는 어패럴 메이킹*. 서울: 경춘사.
- 이형숙, 남윤자. (2001). *여성복구성*. 서울: 교학연구사.
- 임병렬, 정혜민. (2003). *팬츠만들기*. 서울: 전원문화사.
- 정삼호, 안인숙. (2003). *여성복만들기의 실제*.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 정혜민, 조필교. (2004). *봉제기법의 기초*. 서울: 전원문화사.
- 조진숙, 박상희. (2001). 여성복 생산현황과 생산라인 설계를 위한 시물레이션 모델개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5(1), 103-114.
- 조현주, 정혜민. (2012). *패턴제작과 봉제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 천종숙, 석은영. (2009). *의복구성학*. 서울: 동서문화원.
- 한순자, 서옥경, 하희정. (2001). *서양의복구성*. 서울: 예학사.